

<화학산업 경쟁력을 배양하자! >

산업정책과 석유화학의 괴리

21세기의 원년에 들어서면서 경상수지가 급속히 악화, 무역전선에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1998년 405억5840만달러, 1999년 25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데 기여했던 경상수지가 2000년4월에는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경상수지는 2000년3월 1억8000만달러 흑자에서 4월 2억6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고, 1-4월 합계도 수출이 26.8% 증가한 529억달러, 수입이 50.5% 증가한 522억달러로 7억7000만달러 흑자에 불과했다. 1999년에는 4월 16억6000만달러 흑자에 1-4월 합계는 78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었다.

2000년 1-4월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동기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제유가 또한 강세를 지속하고 있고,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어떤 불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져 나올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태이다. 내재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표출되고 300억-500억달러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의 금융투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면 IMF사태를 다시 맞을까 우려되고 있을 정도이다.

IMF 총재나 서울사무소장이 한국경제는 매우 튼튼하며 외환위기를 다시 불러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 다행스럽기는 하나, 일부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그들이 진정으로 한국경제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수입억제정책을 막기 위해 현상을 호도하고 있다고 굽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00년 1-4월 수출증가율이 반도체 20.5%, 컴퓨터 109.6%, 자동차 26.9%, 석유화학 46.6% 등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수입증가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정보화 붐 및 높은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전자 및 기계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1-4월 수입증가율은 원자재 51.2%, 자본재 52.9%, 소비재 36.5%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는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2000년 무역수지 120억달러 흑자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5월 이후 수출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면 월평균 10억달러 수준의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의 안이한 대응은 수출 확대책의 일환으로 중동, 동남아 등에 대한 플랜트 수주확대에 나서고 있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산자부는 플랜트 수주목표를 1999년 40억달러에서 2000년 100억달러로 높이고 2000년 6월에 걸쳐 민-관 합동수주단을 파견하며, 플랜트 수주지원을 위해 수출보험기금을 적극 운영하고 기금규모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1999년에는 연불금융 및 보험 수요 22억6000만달러 중 11억9000만달러만 공급했으나 수출보험기금을 확대해 2000년 1조4500억원, 2001년 2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플랜트 수주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나 플랜트 수주가 곧바로 수출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당연하다.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5월1-20일 86.1% 증가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LDPE 수출가격이 3월 톤당 815달러에서 4월 755달러, 5월13일 695달러, 5월20일 705달러로, PP도 3월 630달러에서 4월 580달러, 5월13일 540달러, 5월20일 550달러로 하락세를 보이던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나프타 가격은 C&F Japan 기준 1999년 1/4분기 톤당 123.6달러에서 2000년 1/4분기에는 254.8달러로 106.1% 상승했다. 수익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2000년 1-4월 에너지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65억달러 증가했는데도 실효성 있는 소비억제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수출확대보다는 수입억제와 수익성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